

“표 중심 ‘문화수도 광주’ 대한민국 자랑거리 될 것”

盧대통령 “정권 바뀌어도 차질없이 진행”

어제 대국민 보고회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대국민보고회에는 노 대통령 내외를 비롯, 김종민 문광부장관, 이웅섭 건교부장관, 조영택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광주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꿈이 씨가 된 꽃-아시아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 문광부는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정책목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7대 문화권 조성 ▲문화도시 기반 마련 ▲예술·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총 사업비 5조 3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억원·2023년 완료 목표)을 발표했다. 김종민 문광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도시, 평화예술의 도시, 문화경제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사를 통해 “아시아 사람이 전부 몰려와서 더 큰 소통과 큰 창조가 이뤄진다면 광주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커다란 자선이 되지 않겠느냐”며 “광주가 꿈을 이루

는 날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치있는 사업, 명분 있는 사업은 어느 누구도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를 누가 맡더라도 이처럼 영글어 있는 광주 시민들의 꿈을 함부로 꺾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추상적인 단계를 넘어 이미 국가사업으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먼 훗날 성공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적 일들을 끌어 안는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더욱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제정돼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최희정기자 chae@



‘광주의 빛’ 타오르다

8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성화 점화자로 나선 광주 삼육초교 3학년 정정길(9·오른쪽)군과 같은 학교 4학년 김도연(10)양이 성화를 점화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관련기사 8·9·20·22·23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국체전 히어로



첫 금 주인공 ‘노국기’...역도 3관왕

“대회 첫 금메달을 딴 광주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교생 역사(力士) 노국기(18·부산체고)가 제88회 광주 전국체전에서 신기록을 작성하며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그것도 대회 3관왕이다.

노국기는 8일 오전 광주 정광고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역도 남고부 56kg급에서 인상 106kg을 들어올려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노국기는 이어진 용상에서도 143kg을 들어 올려, 고등부 기록까지 새로 썼다.

노국기는 이날 인상·용상 합계 249kg으로 성원체(강원체고·233kg), 한명목(경남체고·227kg)을 여유있게 누르고 대회 첫 3관왕의 영예도 품에 안았다. 사전 경기가 열린 사격을 제외하고 이번 대회 41개 정식종목 중 처음 나온 금메달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구 연설회 孫·李 불참 파행 속

신당 경선 일단 봉합

대통합민주신당의 8일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가 손학규·이해찬 후보의 불참으로 인해 결국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등 경선 파행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9일부터 경선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다 손 후보 측에 대해 참여 압력도 거세 질 것으로 보여 신당 경선은 일단 파국의 위기에 벗어나 정상화로 가도를 잡았다. <관련기사 4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후보 측은 당 지도부에 대해 제기된 정동영 후보 측의 불법·부정선거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새 후보 간 날선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8일 오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가 신당 후보로 선출되면 인정해야

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라며 “9일 열리는 인터넷 토론회와 TV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 측은 “당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후보 입장을 취했으나, 이 후보가 9일 경선일정에 복귀하게 되면 손 후보 역시 복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

우일학원 장학 5주년 역사인사 헌정
남부대학교
www.nabun.ac.kr
진남과학대학
www.jn.ac.kr

나주혁신도시 3.3㎡당 15만2천원

총 759만㎡(220만평) 3,340억...토지보상 시작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되는 나주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이 완료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10면>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 8일 혁신도시 기공식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되며 광주·전남의 상생모델인 나주혁신도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의 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 이날부터 개별 토지보상금 내역을 각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이번에 토지소유자별로 지급될 토지보상금은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됐다. 수목 등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분의 평(3.3㎡)당 보상단가는 평균 15만2천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 조성 규모가 총 220만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토지보상금은 3천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해당방송의 재미! 편이2억수세백만원의 손국민의 힘으로 속삭임시대
BEST INFO
TBN 광주교통방송 개국 10주년 축하
특집골개방송이 주)도천 앞에서 열립니다
2007 추계 방송인
광주중장로축제
www.tbn.com